

##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최병두\*

**요약** 초국적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학문 분야들에서는 연구 성과물들이 발표·누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의 질적 발전, 특히 학제적 협력과 통합적 이론 체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학제적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제적 연구를 위해, 각 학문 분야에서 누적된 성과의 비교가능한 검토, 특정한 관련 주제의 협력적 공동 연구, 방법론과 개념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개인 행위의 미시적 차원에서 지구적 구조의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배경과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규모적 접근에 바탕을 둔 통합적 이론 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을 검토하여 사회적 정의와 같은 보다 바람직한 윤리적 관점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각 측면들에서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초국적 이주, 다문화사회, 학제적 접근, 다규모적 통합 이론, 종합적 정책

### 1. 서론

인구의 국제적 이주와 이로 인한 국가 간 문화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지구·지방화 과정과 더불어 촉진된 초국적 이주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배경 하에서 전개될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범위, 속도, 그리고 그 영향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는 흔히 (초국적) ‘이주의 시대’ 또는 ‘다문화(주의)의 시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

---

\* 대구대, 지리학, bdchoi@daegu.ac.kr

의 경제의 지구화와 더불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 과정 속에서 촉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에는 다양한 -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의 결과도 사회의 제반 분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최근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구-지방적 과정을 배경으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최근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인구의 이동과 이에 따른 영향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현상이며,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들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학문 분야들은 예로 인구 이동 자체를 연구 주제로 하는 인구학이나 인류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과정 및 그 결과의 각 측면들을 연구하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연구, 그리고 이들의 이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학, 복지학, 교육학, 정책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측면을 다루는 지리학과 역사학, 나아가 이에 내재된 규범이나 윤리 등과 관련된 철학, 윤리학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러한 학문 분야들에서 ‘다문화 연구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연구모임과 학회, 연구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논문들뿐만 아니라 단행본과 학술지들이 발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특히 재정적) 지원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러한 왕성한 연구와 지원은 이 주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누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의 구축, 그리고 보다 적실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실제 초국적 이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원주민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다문화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 질적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양적 증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 인력과 지원의 중복과 낭

비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분야들 간 연계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 성과가 공유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문 분과별로 상이한 용어나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연구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학제적 연구와 통합적 이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국적 이주 이동의 배경, 과정, 그 결과는 사회의 어느 한 측면만 아니라 모든 측면들과 관련되며, 또한 어느 한 학문 분야가 아니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체의 거의 모든 분야들과 관련된다. 나아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현실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명명하도록 할 정도로 현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학문 세계(그리고 관련 정책도 포함하여)에도 학제적 연구와 통합적 이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Bommes and Morawska, 2005).

물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에서 학제적 연구와 통합적 이론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또는 필수적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카슬(Castles, 2010: 1565)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주에 관한 일반 이론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주 연구를 현대 사회에 관한 보다 일반적 이해에 다시 뿌리를 두도록 하고, 이를 사회과학 분야들을 가로질러 보다 광의적인 사회변화이론들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 동향들을 학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을 재검토하여 통합적 (또는 최소한 보다 적실한) 연구방법론의 가능성을 고찰하며, 나아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문제와 정책 분야별 과제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연구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2.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접근

자본주의의 지구-지방화 과정과 더불어 급속히 전개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을 경험하도록 했다. 1990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5만 명 정도에 불과

했으나 2011년 5월 130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서 촉진된 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더불어 국가 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 그리고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및 3D업종의 취업 기피 등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과정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일반의 많은 주목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에 관해 보다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학문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이들의 사회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한 인종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젠더나 성, 장애, 노령 등에 의한 사회문화적 소수화에 따른 문제도 포함할 것이다. 윤인진 외(2009)의 연구는 이러한 세부 주제들을 포함하여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가 최근 얼마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그 동안 출간된 석·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특히 ‘다문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1990년 이전에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편의 논문도 없었던 반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5년 이후 간행된 석박사학위논문 수는 8백편을 능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윤인진 외(2009: 237-238)은 “급작스러운 양적 성장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며, 그 연구 대상이 결혼이주여성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편중되

표 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간행 추이

세부 주제	1961-79	1980-89	1990-99	2000-04	2005-09	합계
국제이주	4	10	15	52	338	420
소수자	3	2	15	34	183	238
재외한인	9	13	113	182	209	526
다문화	-	-	24	129	814	967

자료: 윤인진·유태범·양대영(2009)

어 있는 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화교와 같이 그 수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그 원인과 해결책 모색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국제이주의 특성이 그 이전 시기에 비교해서 훨씬 복잡해졌고 이주 관련 현상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학문분야에서 고립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양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연구에 대한 성찰적 검토를 통해 질적 성장과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인진 외의 연구와 유사하게 최근 각 학문 영역들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전영준(2009: 109-110)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에 관한 연구가 문학(비교문학연구, 문화연구 포함), 역사학(전근대사의 각 단계 연구 포함), 철학(문화철학, 실천철학 등), 그리고 사회과학 각 분야(갈등연구, 법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주제를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서양에서 생성된 이론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실제적 논의는 사회학과 정치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실정으로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에 입각한 통합적인 패러다임 제시가 아직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례로, 교육학 분야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관한 김민환(2010: 61)의 논평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부터로 이후 각종 학회나 단체 및 정부 기관의 연구 활동도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교육 연구가 중등보다 초등과 유치원 교육에서 활발하며, 그 초점도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실태나 내용, 방법 및 교사의 인식 등에 맞추어져 있다.” 보다 세부적 유아의 다문화 관련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서현아, 김정주(2010)의 연구나 다문화가족 일반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최정혜(2010)의 연구 등도 이와 같이 개별 학문 분야들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그 특성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연구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 또는 각 학문 분야별 연구 동향에 관한 반성적 고찰의 등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학문 분야들에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 누적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전망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들에 의하면 (아직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다른 여러 학문분야들, 예로 정치학, 경제학, 복지학, 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철학,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대체로 각 학문 분야들에서 2000년대(특히 2005년) 이후 연구물들이 급속히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한 학문 분야 내에서도 여전히 특정 세부 주제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학문 분야들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는 학제적 연구와 통합적 방법론의 모색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에서 학제적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이 발간되고 이를 반영한 학술 심포지움들이 열리고 있다. 예로, 중앙대학교의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2010)에서 편집한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는 관련 문화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복지학, 역사학, 일문학, 불문학, 철학 등의 학문분야에 속한 연구자들이 기여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물은 “개별 필자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다문화와 관련해 발표한 연구논문들”을 편집한 것이고, “이 총서가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이 지향하는 학제 간 연구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개별 분과 학문의 한계점 또한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 스스로 인정되고 있다(5쪽).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문 분야별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한 학제적 접근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영미학계의 연구 동향 검토에서도 이미 1990년대부터 주요하게 지적되어 온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한국 사회와는 다른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앞서 진행되었다. 특히 카슬(Castles, 1993: 30; Brettell and Hollifield, 2000: 2 재인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 입장에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지만, 그 이론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매우 학제적”이라는 점에서 경제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복지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들뿐만 아니라 철학, 윤리학, 문화연구나 교육학과 같은 인문학에서도 주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과별 접근에도 불구하고, 매시 외(Massey

et al., 1994: 700-701)은 사회과학자들이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공유된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접근하기보다는 학문 영역들, 지역별, 이데올로기별로 파편화되고 경쟁적인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협소해지고, 흔히 비효율적이며, 복제, 오해, 반복, 그리고 근본에 대한 논란으로 특징지워진다고 비판하고, 연구자들이 공유된 이론, 개념, 도구, 표준을 수용할 때만, [관심 주제에 관한] 지식은 누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보면, 1990년대 서구 사회에서도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지속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었다. 브레텔과 홀리필드(Brettell and Hollifield, 2000: viii)도 카슬, 매시 등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이주연구는 흔히 간학문적 또는 다학문적이며, 이주이론은 “학제적 접근을 요청”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제이주에 관한 다학문적 및 학문간 비교연구를 통해 이주 관련 연구자들 간 ‘대화의 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국제 이주에 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보다 통합된 이론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성과는 역사학, 인구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법학 등 사회과학의 각 분야들에서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문을 모아서 편집하는 것이었고, 이에 관한 한 비평가(Kraly, 2001)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래 이 편집서가 의도했던 학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문 분야들 간 연계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보머스와 모라브스카(Bommes and Morawska, 2005)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들에 의하면, 역시 인구의 이동은 단순히 사회적 인구 구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최근 초국적 이주는 이에 관한 기존 학문 분야들(예로 역사학, 사회학, 언어학, 경제학 등)에서의 전통적 고전적 연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 분야들(예로 정치학, 인류학, 심리학 분야에서 초국적 이주와 초국가주의에 관한 연구)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과들에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여 년 간 많은 경험적 지식을 누적시켰으며, 새로운 철학적 성찰과 윤리적 규범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초국가)주의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학문 분야에서도 주류 연구 의제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이에 관한 연구는 어느 한 단일 학문분야에서는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당연히 개별 학문분과를 넘어서 다학문적 또는 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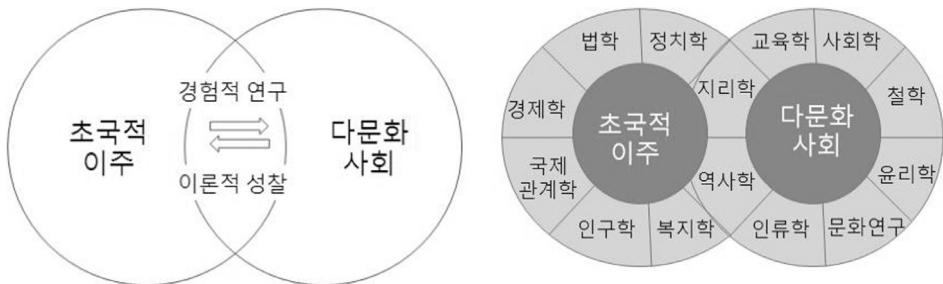
이러한 학제적 접근의 당위성과 실제 연구의 학문적 한계에 관한 문제는 보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로, 보스웰과 뮤저(Boswell and Mueser, 2008: 519)는 국제이주에 관한 경제학을 사회학 및 정치학에서의 연구와 결합시키고 나아가 다학문적 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집호 게재 논문들을 소개하면서, “다학문적 협력에는 실질적 혜택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완전한 통합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이론적 핵심들을 수정하지 않은 채 - 특히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의 개념에 집착하여 - 다른 사회과학들로부터 통찰력과 개념만 수입하기를 선호한다”고 지적하고<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들 간 대화는 연구자들이 선택한 연구 방법을 분명히 하고 세련되게 하도록 고무시킨다. 게다가 사회적 설명에서 다양한 접근들의 공존은 이주에 관한 보다 풍부하고 유효한 일단의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결론지은다.

한국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초국적 이주자의 유입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겪은 서구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sup>.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위에서 살펴본 한국 및 서구 사회에서의 연구들은 대체로 ‘국제 이주’에 관한 초점을 둔 것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철학적, 윤리적 연구까지 포함시키면 개별 학문들 간 훨씬 다양하고 이들 간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최소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에서 완전히 통합된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근대 학문의 분과체계의 형성과 더불어 근대 인식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1-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는 초국적 이주에 관한 경험적·분석적 연구와 다문화사회의 윤리와 관련된 보다 철학적·이론적 성찰의 통합을 동시에 요구하며, 사실 이들은 서로 다른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연계된 통합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서 경험적 연구와 철학적 성찰은 근대 인식론에

서 실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는 그림 1-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학문 분과들과 연계되어 있지만, 이러한 학문 분과들은 근대적 학문체계로 고착되어 있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 통합적 연구를 지향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실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학제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결코 무시 또는 포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첫 번째 단계는 우선 각 학문 분야들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누적되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브레텔과 홀리필드(Brettell and Hollifield, 2000)의 연구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이들이 편집한 단행본의 각 장들은 역사학, 인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에서 제시된 연구의 성과와 동향들을 연구과제, 분석 수준/단위, 지배적 이론, 주요 가정 등 몇 가지 공통된 항목들에 초점을 두고 상호 비교가능하도록 논평하고 있다(표 2). 물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장들은 학문 분야들 간 연계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지만, 각 장들은 나름대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들 간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인식론적 연계 (나)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문 분과들

그림 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인식론과 학문 분과들

표 2. 초국적 이주에 관한 각 학문 분야별 연구의 특성

학문 분야	연구의문	분석 수준/ 단위	지배적 이론	주요 가정	이주행태와 그 효과	
					중속변수	독립변수
인류학	이주가 문화변화 및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미시적 (개인, 가구, 집단)	관련적 또는 구조주의적, 초국적	사회적 네트워크는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이주자 행태 (유출, 통합)	사회·문화적 배경(초국적 네트워크)
인구학	이주는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 거시적 (인구)	합리주의적 (경제학에서 주로 차용)	이주는 출산율을 증가시킨다.	인구 역동성 (분포, 수준, 율)	이주행태의 효과 (예, 출산율)
경제학	이주 성장과 그 효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보다 미시적 (개인)	합리주의적, 비용-편익, 압출-유인	편입은 이주자의 인적자본에 좌우된다.	이주자 행태 (이주 및 편입) 와 경제적 영향	임금/소득차이, 수요-유인/ 공급-압출, 인적자본
역사학	이주 경험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보다 미시적 (개인과 집단)	이론과 가설 검증 삼감	응용하지 않음	이주 경험	사회적/역사적 맥락
법학	법은 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시적 및 미시적 (정치, 법 체계)	제도적 및 합리주의적 (사회과학에서 차용)	권리는 이주자를 위한 주도적 구조를 창출한다.	이주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관리	법 또는 정책
정치학	국가는 왜 이주를 통제[관리]하기 어려운가?	보다 거시적 (정치적, 국제관계 체계)	제도주의적 및 합리주의적	국가는 흔히 친이민자적 이해관계에 집착한다.	정책(행정주의적, 제한주의적) 결과(관리, 통합)	제도, 권리, 이해관계
사회학	이주자의[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다 거시적 (인종집단과 사회계층)	구조주의적 또는 기능주의적	이주자의 편입은 사회적 자본에 좌우한다.	이주행태 (이주와 편입)	네트워크, 엔클라브, 사회적 자본

자료: Brettell and Hollifield(2000: 19)

두 번째 단계는 초국적 이주 및 다문화사회에 관한 특정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 분야별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다. 예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초국적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시민성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한편으로 국민국가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해 연구하는 정치(사회)학자들과 인종성 및 정체성의 구축과 재구성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인류학자들 간의 흥미로운 협력과 공동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Brettell and Hollifield, 2000: 19). 또 다른 예로, 근대학문의 발달과정에서 역사학과 더불어 종합학문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지리학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맥휴(McHugh, 2000)는 이주와 공간과정에 관한 지리학적 분석에 민속학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학제적 관점과 다방법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공간, 장소, 연계라는 점에서 사유하는 지리학자들은 사람과 장소, 그리고 이주와 순환 체계의 사회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전은 다중적 인식론과 관점들에 개방적이며,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가로지르는 지적 활동이 사회사상에서 장르들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초국적 이주 및 다문화사회에 관한 특정 학문 분야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적 틀, 인식론적 가정, 설명적 전략들의 상호 이해를 통해 개별 학문 분야의 언어와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라고 할 지라도 하나의 완전히 통합된 일반 이론이나 방법론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연구자가 이러한 일반 이론을 완전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비교적 단순한 개념들과 구조로 짜여진 이론적 틀을 만들어내고 이에 기반을 두고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분업적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공동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학제적 접근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연구가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할 점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실천적 경험과 생활세계에서의 언어이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연구는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성찰 간의 상호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통합적 방법론의 모색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가 학제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이유들에는 직접적으로 학문 분야들 간 소통과 협력의 부재 또는 미흡만이 아니라,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이론적 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상이한 연구 범위나 규모 그리고 연구 대상들을 다루거나 또는 다양한 관점과 분야들에서 정책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앞서 제시한 표 2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문분야들에 따라 분석수준이나 단위가 다르고 또한 지배적 이론도 다르

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지역 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이나 이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주로 (가정)복지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처럼, 각 학문 분야에 따라 주요 연구 대상들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학문 분야들 간 분석 수준이나 범위, 주요 이론적 관점이나 방법론, 그리고 연구 대상에 있어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는 통합된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방법론이나 이론적 관점 등의 다양성을 해소하고 통합된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것은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에서 방법론적·이론적 검토를 제시한 연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설동훈(1999)을 들 수 있다. 그는 국제노동력 이동 이론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구조와 행위의 연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의 구분은 사회학(나아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흔히 미시적/거시적 접근으로 이원화된 이론체계를 반영한 것이며, 관계이론은 이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대안적(중범위)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석현호(2000)는 다소 다르게, 매시 외(Massey, et al., 1993; 1994)이 제시한 분류방식, 즉 초국적 이주의 발생/영속화 이론의 구분에 더하여 이주의 마지막 국면(또는 단계)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응(정착)론을 추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구상된 행위체계적 접근을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표 4). 이러한 분류 방식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론들을 이주의 발생(배경과 이주과정) → 이주의 영속(새로운 이주의 발생) → 이주 후 적응과 정착이라는 이주의 전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별 분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가 제안한 행위체계적 접근은 미시적/거시적(또는 행위적/구조적) 접근방식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뿐만 아니라, 그가 다루고자 한 이주과정의 단계별 이론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다.

보다 최근 김용찬(2006)은 정치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 등에서 국제이주에 관한 분석 방법들, 특히 기존 경제이론(특히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주의 신경제학, 노동시장분할론 등)과 역사-구조접근법(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세계체제론 등)을 검토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국제이주의 포괄적 분석을 위한 대안으로 일반체계이론을 국제이주분석에 원용한 '이주체계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역시 미시적/거시적 이론들과 이주 → 정착과정에 관한 이론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

표 3. 국제(노동력)이동 이론 분류

행위이론	구조이론	관계이론
배출-흡인 이론	세계체계 이론	사회적 연결망 이론
비용-편익 분석	노동시장 분절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

자료: 설동훈, 1999: 38

표 4. 국제이주·적응에 관한 방법론 분류

발생론	영속화론	적응(정착)론
신고전경제학과 신이주경제학	사회적 자본론	인적자본론과 노동시장분절론
노동시장분절론과 역사-구조론	누적원인론	이민사회학과 경제사회학

자료: 석현호, 2000에서 정리함

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전형권(2008) 역시 국제이주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재검토 하여, 각 이론이 가지는 분석적 유용성과 한계를 밝히고, 나아가 그가 지칭한 ‘초국가형 디아스포라’의 통합모형이 갖는 분석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설동훈과 유사하게 “신고전경제학의 행위자 중심시각이나 세계자본주의체제나 일국의 노동시장분절 등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며, 행위자와 구조를 통합하는 관계론적 시각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송출국과 수용국을 둘러싼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의 통합을 통해 안정된 국제이주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작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기존 이론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2개의 축, 즉 미시/거시적 분석, 분석단위(개인, 가족, 시장, 국가)가 상호 배타적인 기준인가라는 점과 그가 실제 초국가형 디아스포라를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나 방법론들에 관한 이러한 재검토는 물론 이들이 국내 연구에서 누적된 연구 성과들에 근거하기보다는 대부분 서구 사회에서 제시된 연구방법론의 재검토에 대한 소개와 국내 상황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의 적용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방법론의 검토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예로, 포테스(Portes, 1981)는 이미 1980년대 초에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들을 재검토하면서 이주의 거시적 구조와 더불어 행위자들의 사회연결망에 바탕을 둔 관계적 측면을 함께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매시 외(Massey, et al., 1998 특히 제2장)은 본격적으로 국제이주에 관한 다양한 현대적 이론들을 검토·평가하고자 했으며, 이들의 연구는 석현호(2000), 김용찬(2006) 등에 의해 소개된 바와 같다. 또한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1993; 2009)도 초국적 이주에 관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방법론들에 관한 서구사회의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재검토 결과에 의하면, 우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기존의 이론 또는 방법론들은 미시적(행위적), 거시적(구조적) 접근들과 이들을 결합(또는 통합)시키고자 하는 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주과정에 관한 이론들과 정착과정에 관한 이론들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두가지 구분들, 미시적/거시적 접근, 이주/정착이론들은 실제 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분석적으로 구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아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존의 이론들은 다

표 5. 초국가적 이주에 관한 접근방법의 다규모적 분류

규모	접근방법	주요 내용
개인적	행태적 접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기와 태도에 따른 이주와 적응
	인적 자본론	개인이 가진 능력에 대해 최대의 대가를 지불해 줄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주
가족적 (집단적)	위기분산전략 (신이주경제학)	식구 중 한두 사람을 먼저 해외로 이주시켜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이주
	사회적 자본론	국제적 이주의 사회적 연결망은 정보 획득과 문제 해결(또는 위험 회피)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동
지역적	이주생태학적 접근	중개인 집단과 소수 인종군락에 의한 적소애의 편입으로서 이주
	누적원인론	노동수요의 감소에 따른 이출 압력 등에 의한 누적 효과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이주 영속화
국가적	사회인구학적 접근	국가의 성/연령 구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노동인구 또는 혼인 적령인구의 분균형에 따른 인구 유입
	흡인-배출 요인론	국가적 차원의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이주: 흡인요인(인구/노동력 감소, 가사노동수요 증가)과 배출요인(인구과밀, 경지부족, 성차별, 일자리부족, 저소득) 구분
국제적 (공간적 분절론)	이중적 노동시장론	자본주의 발전이 두 개의 구분된 직업유형을 창출하며, 이주노동자의 고용은 이차 노동시장에서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
	문화교차론 (이주여성화론)	문화의 구성 주체인 계층, 민족, 인종, 젠더, 성성 등의 불균등한 관계에 따른 국제적 이동
세계적 (초국가 주의)	(문화적) 탈영역화론	경계의 해체와 재구성에 의해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여러 흐름들의 발달, 다중적으로 구조화된 새로운 지구적 공간의 형성
	자본주의 세계체계론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서 세계체계적으로 구축된 자본축적과 계급 지배를 위한 새로운 성격의 인구 이동

규모적 접근에 따른 사회공간적 차원, 즉 개인적 → 가족적(집단적) → 지역(사회)적 → 국가적 → 국제적 → 세계적 차원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표 5). 그리고 이들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시도들의 연장선상에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이론화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이주의 배경에 관한 구조적 측면과 이주의 행위적 차원을 상호 연계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규모 국제 이주를 유발하는 세계체계의 불균등지역(또는 중심국-주변국)구조를 고찰하는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간 그리고 공동체 간 이주 성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Gross and Lindquist, 1995).<sup>4</sup> 즉 최근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국제 이주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구적 재편과정을 배경으로 연계된 개별 국가(지역)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균등성에 따라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Overbeek, 2002; 최병두, 2011: 제1장).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규정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에 보다 민감하고 취약한 집단들은 빈곤, 정치적 억압, 사회문화적 배제(인종적, 성적)가 일반화된 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또는 자아실현)의 기회가 보다 풍부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는 행위자의 차원에서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본주의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지구화 과정의 둔감한 구조적 규정력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제이주에 함의된 경제적, 정치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함께 결합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들 간 상호교류에 따른 국제이주는 그 자체로서 문화적 현상이며,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 구성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접촉에서 유발되는 문화적 갈등이나 정체성의 상실과 같은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사회경제적 문제를 문화의 문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갈등 뒤에는 흔히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으며, 특히 다문화(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 갈등은 사회경제적 갈등과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Martiniello, 1997; 2002: 51).

셋째, 이주 및 적응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는 독립적인 한 개인이라기보다 사회적 집단(가정에서부터 국가 조직에 이르는 공식 및 비공식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이주자들은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의 이주 및 정주한 지역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써 인식하고 활동하며,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주를 위한 정보의 획득이나 위협의 분담, 그리고 이주경로의 선택, 유입 지역에서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이를 위하여 발전시킨 다양한 사회공간적 연결망에 의존하게 된다. 이주의 연결망은 이주의 촉매자가 되고, 이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주자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착취하기도 한다. 이주 및 적응과정에서의 연결망을 강조하는 연구는 물론 단순히 생태적 또는 기능적 접근이라기보다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행위-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에 근거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배경이나 연계망을 통한 이주 및 정착과정은 외국인 이주자 자신(개인 또는 집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들이 떠나온 국가나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들이 유입된 국가나 지역사회나 그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그림 2). 즉 송출 국가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연쇄이주는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유입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은 단순한 동화과정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원주민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다문화적 관계의 형성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가 긍정적/부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그 지역사회에의 외국인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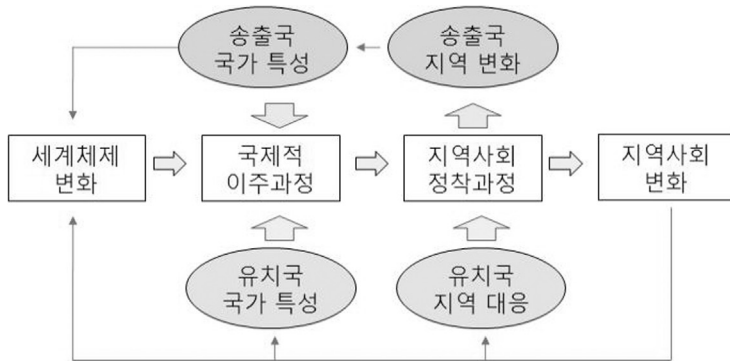


그림 2. 초국적 이주와 정착과정

는 확대/축소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행태(주의)적 측면에서의 피드백과정이라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국가적, 세계적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재구조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국제이주가 제도화된 사회공간적 과정으로 역동적으로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더하여, 서구 사회에서 보다 최근 이론적 검토들은 단순히 정형화된 이론적 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보다는 새롭게 이슈화된 이론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로,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는 자신의 저서,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특히 2009년 발간된 4판에서는 이주과정과 이주체계 및 네트워크(초국가주의 이론 포함)에 관한 이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주에서 정착에 관한 연구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소수 인종 문제, 문화적 정체성, 국가와 시민성 등을 새로운 이론적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포테스와 드윈드(Portes and DeWind, 2004) 역시 초국적이주 연구에서 새로운 개념적, 방법론적 발전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는 어떤 고정된 이론적 틀이나 방법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현실 세계의 변화 과정에 조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보다 광의적인 사회이론 및 인문학적 성찰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카슬(Castles, 2010: 1565)이 제기한 주장, 즉 “우리는 이주 연구를 현대 사회에 관한 보다 일반적 이해에 재착근시키고, 이를 사회과학 분야들을 가로질러 보다 광의적인 사회변화이론들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이 이해될 수 있다.

## 4.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대안적 관점과 정책 과제

### 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대안적 관점의 모색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의 연구는 이와 관련된 현실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관점 또는 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로,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행위자의 선택에 관한 고찰뿐만 아니라 구조적 배경에 관

한 고찰이 중요하다는 주장, 나아가 행위 차원과 구조 차원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사회의 구성에 관한 방법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국적 이주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윤리적 측면과 정책적 과제의 문제를 내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국적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태도나 노력에 따른 성공/실패가 아니라 이주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서 이들을 어떻게 포섭/배제하는가에 관한 윤리적 및 정책적 관점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초국적 이주자들은 이주한 지역의 생산 현장이나 생활공간 속에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연수생 또는 불법체류자) 또는 가난한 나라에서 못살아서 떠난 ‘우편배달 주문 신부’(mail-order-bride)로 인식되며, 사회적 인종관에 따라 인종질서의 서열화가 매겨지고 사회적 약자 또는 타자로서 관념화된다(한건수, 2003). 이와 같이 실제 상호행동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라기보다 관념적으로 형성된 인식, 즉 ‘상상적 관념’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점의 문제는 학제적 연구와 통합된 이론의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관한 기존의 관점들은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자들의 담론에서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들로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한 관점(또는 주의, 즉 ‘ism’)이며, 그 자체로 현실 분석을 위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윤리적 및 정책적 규범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관심

표 6.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여러 관점들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	초국가주의 (transnationalism)	탈식민주의 (postcolonialism)
행위주체	이주자+현주민(이주자와 현지 주민의 혼합)	지구문화를 수용, 발전시키는 현지 주민	이주자에 초점을 두고, 자본이나 기업도 포함	기존의 지방문화를 초월하고자 하는 이주자
현실의 관심분야	문화적 현상과 이데올로기	사회문화현상과 이데올로기	정치경제과정과 사회적 현상	사회문화현상과 문화비평
규범적 성향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	이방인에 대한 윤리	초국민 국가와 하위정치	경계인과 하위 주체(subaltern)
주요 주창자	김리카 (W. Kymlicka)	누스바움 (M.Nussbaum)	벡 (U.Beck),	스피박 (G.C.Spivak)

이 주어지는 행위주체와 현실 세계의 관심 분야는 다소 다르고, 또한 이론적 성향도 상당히 다양하다. 이들에 내포된 분석적 측면과 이론적 및 윤리적 특성들은 세부적으로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겠지만, 단순화를 전제로 그 특성을 소개하면 표 6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규범을 내포하고 있으며(Kymlicka, 1995; 장동진 외 역, 2010)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외국인 이주자(이방인)들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환대를 받아야 된다는 규범을 내포하고 있다(Appiah, 2006; 실천철학연구회 역, 2008).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은 지구화로 인한 국민 국가의 무력화 등을 지적하고 초국민국가와 하위정치를 강조하며(Beck, 2002; 2006),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은 (신)식민지적 경험에 바탕을 둔 혼종성과 경계인의 입장에서 지배에 대한 비판(지배의 전복)과 하위주체(subaltern; 기층민중)의 입장에서 억압 체제에 대한 저항을 강조한다(bhabha, 1995; Spivak, 1999). 이와 같은 관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구-지방화과정에서 촉진되고 있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또는 개념적 틀과 더불어 윤리적 규범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개별 관점 내적으로 또는 관점들 간에 서로 비판적이거나 대립적 논쟁들이 있었다. 예로, 벡(Beck)은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초국가주의와 세계시민주의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세계시민화라는 이름으로 초국가주의의 지표들을 제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Roudonetof, 2005). 다른 한편, 하비(Harvey, 2009)는 칸트에서부터 누스바움(Nussbaum), 벡(Beck), 애피아(Appiah) 등에 이르는 세계시민주의가 자본주의의 지구화 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이들의 세계시민주의 보편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시민적 원칙들 자체가 당면한 지리학 적, 생태학적, 인류학적 특수성들의 영향으로 수정되거나 심지어 급격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권 이론의 경우처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즉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주의, 초국가주의 등은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 국가의 해체와 다문화(또는 세계시민적, 초국가적)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적 규범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이들이 개별 장소나 지역들에 뿌리를 두지 않을 경우, 결국 지배집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전환할 수 있음이 경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학문적(즉 사회이론적, 철학적) 성찰은 관련된 관점들에 대한 매우 세심한 해석과 이에 따른 비판/수용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성찰은 특히 특정한 관점이 지배집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동원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들을 지나치게 비판할 경우,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규범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을 억제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창궐할 수 있다. 실제 서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과정에서 기존의 다문화정책들이 퇴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미첼(Mitchell, 2004: 64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다문화주의는 점차 퇴조하고 있다. 동시에 동화가 그 녹슨 이미지를 벗어나서 주요 개념적 및 정치적 도구로 그 지위를 다시 얻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정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 비판이 요구된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의 주요 관점들은 동화주의 대 다원주의, 자유주의(또는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 평등주의 대 차별주의, 배타주의 대 포용주의 등의 이원적 대립으로 조건지어져왔다. 예로, 베리와 김리카의 논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을 사회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를 각 개인에게 있어서 규범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꼭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하고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한다(한준성, 2010). 물론 이러한 구분은 분석적이며, 실제 동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경향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나타나며, 다원주의적 경향이 동화주의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적으로 동화주의적 사회, 또한 전적으로 다원주의적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 서로 경쟁하는 이념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Martiniello, 1997; 2002: 70).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같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정에서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주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 분야, 학파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며, 때로는 심각한 정치이데올로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로 2차 대전 독일에서의 유태인 학살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극단적 반대로 초래된 역사적 재앙이

었다면,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소한 담론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적 색깔(상부구조)로 비판되기도 한다(최병두 외, 2011).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심지어 탈식민주의에서도 내재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는 외형적으로 학제적 접근이나 통합적 이론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의해 창출되거나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원되는 지배적 관점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포괄적 입장을 전제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윤리적 배경으로 다문화주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담론에서 흔히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분명 동화주의나 배제주의와는 구분되는 어떤 정책적 지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나 차이를 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정책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등을 둘러싸고, 피동적 다문화주의와 능동적 다문화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행위주체가 국가주도적인가, 시민주도적인가에 따라 정책적/실천적 다문화주의로 구분되거나 또는 정책의 집행 방식에 있어 위로부터(하향식)아래로부터(상향식) 다문화주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또한 온건한(soft)/강경(hard) 다문화주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온건한(soft) 또는 가벼운(light) 다문화주의는 일상적 생활 및 소비 양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가 소수집단

표 7. 피동적 다문화주의와 능동적 다문화주의

	피동적(정책적) 다문화주의	능동적(실천적) 다문화주의
목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승인과 공적 영역에서 참여 권리를 부여 받음.	인종적 문화적 차이의 인정에서 나아가 이를 부정하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저항
행위주체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일부 시민·종교단체가 시혜적으로 시행하며, 외국인 이주자는 피동적임.	주류집단의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종교단체들과 외국인 이주자들의 능동적으로 공동 참여함
정책사례	- 자본의 시혜를 전제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자 지위 인정 -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참여 축제 등	- 자본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자의 노동 3권 보장(쟁취) - 원주민과 이주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축제 등
다문화	-	-

자료: 최병두 외, 2011: 42

단체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려할 수 있다(예로, 교육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공공정책을 시행). 강경(hard) 다문화주의는 온건 다문화주의 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다원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련의 공공정책과 특정 소수집단 성원에게 보장된 권리(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동일한 시민권의 부여 등)의 인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다문화주의가 피동적(정책적, 하향식, 약한) 다문화주의에서 능동적(실천적, 상향식, 강한) 다문화주의로의 나아감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다문화주의는 사회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즉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문화적 다원성이나 정치적 권리의 인정 이상의 문제로 사회정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재분배의 문제가 되며, 또한 사회정의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Martiniello, 1997; 2002: 100; 최병두 외, 2011: 제1장). 다문화주의와 사회정의와의 관계는 소득과 부의 분배적 정의, 그리고 인권과 기타 권리에 관한 정의, 그리고 정체성과 타자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정의(이른바 승인적 정의) 등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 2)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와 정책과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학제적, 통합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또 요인으로 관련된 정책들의 분화와 그 담당 부서들의 분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국적 이주, 특히 국가 간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저개발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이주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보다 높은 소득 기회의 확보와 더불어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하겠다. 이들은 국내에 이주하여 열악한 작업 및 생활환경을 감수하고서도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임금이나 생활조건은 매우 불평등하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이에 대한 정당한 인정(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등)을 전제로 한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인권(국적문제에서부터 구타나 폭언에 이르기까지)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거주, 교육, 의료보전 등에 있어 최소한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는 차단되어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질병의 발생시 대처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인간 삶의 기

본적 권리(생존권)와 더불어 인간적 권리들이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와 사회정의를 조화시키는 또 다른 주요 측면은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타자성의 인정 또는 상호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승인적 정의는 상호간에 애정 어린 배려와 존경 및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산과 인식의 재구성을 요청한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의 수용과정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은 해당 국가의 정책에 의해 크게 조건지워진다(최병두 외,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다양한 학문분과들과 관련되는 것처럼, 이들의 현실 생활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규정하는 정책들은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한다. 즉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정책들은 사회의 제측면들,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들에 내재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 간에도 밀접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의 개념과 정책간 상호연계성을 전제로 각 분야별 정책들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대책

다문화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선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경제적·공간적 불평등의 심화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내에 중·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균등발전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은 개발도상국들도 국제시장에 편입되도록 하여, 이들로부터 노동의 유출을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인구 유출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산업 부문(저숙련 노동)의 이주자 노동 풀을 형성하거나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필요(가사노동도 포함)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소득과 삶의 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주는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의 차이를 줄이기보다는 확대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유치국 내에서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피

하는 업종에 취업하거나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이 주어진 지역들에서 살아간다. 결혼이민자들은 저소득계층이나 농촌의 배우자들과 결혼하여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더불어 노동(가사노동이나 취업)을 요구받게 되며,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고된 저숙련 육체노동이 필요한 업종들에 취업하게 된다. 심지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지방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공단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농촌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배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민족적, 인종적 격리가 미국에서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점차 인종적 집단들의 분화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는 산업간 지역간 불균등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편으로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실업자와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내 업종(생산직/첨단기술직), 직종(정규직/비정규직),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고용 기회와 소득 차별의 차별 완화는 내국인들로 하여금 외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 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종사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이주자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 (2) 정치적 배제의 문제와 대책

현재 정부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이민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일정 기간 체류 후 귀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를 통해 국적 부여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예로 외국인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숙련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시적 체류만 허용하며 가족동반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주자들(특히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영주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지만, 앞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완화 대책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주자들이 국내 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유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보 부재로 결혼 사기를 당하

거나 인신매매성 결혼 중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이의 중매 절차가 상업화됨에 따라, 국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과정에서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 학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다.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권 유린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적 배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민족을 전제로 한 순혈주의에 집착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처럼, 이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영토(또는 민족)에 기반을 두고 포용/배제를 결정하는 정치적 인식은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국적취득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보다 포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주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한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개척해 나가는 국제이주라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들에게 기본적 사회서비스들의 보장과 더불어 배우자의 최소한 동의로 국적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와 더불어 사회·정치적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 (3) 사회적 통합의 문제와 대책

외국인 이주자들 대부분은 본국과는 상이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하에서 생활하게 된다. 예로 기후와 지형 등의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습관과 생활양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상이한 자연환경적 조건들에 대한 단기적 적응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과 관련된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개조가 필요하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인문적 환경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의 문제는 사람들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새로운 생활공간에의 적응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을 작용하게 된다. 그 외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의 차이뿐만 아니라 종교나 가치관 등의 차이는 가족 간, 이웃 간 원활한 상호행동을 저해하게 된다.

지역사회 정착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거주하게 되는 생활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그에 함의된 가치관과 태도 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 요소들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이에 따른 적응이다. 생활공간 주변의 지리적 환경과 사

물들의 입지에 대한 지식 부족은 이주민들의 행동공간을 제약하게 된다. 이주자가 새로운 지역환경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이에 따른 행동공간의 제약은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나 부와 권력의 배분과정에서 배제되도록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의 지원기관들에의 지리적 접근이 차단되거나 또는 이주자들의 자녀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에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자들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적 관계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이주자들에게 지역사회에 관한 자연적, 인문적 지식들을 함양시키고, 이에 따라 지리적 이동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주자들의 지리적 이동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예로 가족의 반대,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원활한 사회적 적응은 사회공간적 연계망의 형성과 이를 위한 언어적 및 지리적 접근의 증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 (4)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와 대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산과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대중문화는 점차 상품화·획일화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 경향으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면서 인종적·계층적·지역적 정체성의 복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이주로 인한 세계적 변화와 이에 따른 한 국가의 국민 내에 소수민족이나 인종, 이민자 집단의 형성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전 세계는 동질성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정체성의 회복이 요청되고 있다. 문화와 정체성의 추구는 지구화 속에서 길 잃은 개인들의 삶의 의미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이주자들이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보다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의의 노력(예로 새로운 언어 교육의 의무화나 지역사회에 가능한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지리적 지식의 함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나치게 사회적 통합을 강조할 경우, 동질적 사회를 위한 사회적 통합의 시도 자체가 이주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의 보장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초국적 이주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중적 또는 다규모적이며 ‘혼종적’이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기 쉽지만, 이들을 최소한 국지적 시민성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정착과정을 보장할 수 있다(Kymlicka and Miller, 1995; 2010). 또한 정체성의 자각과 회복은 이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하는 원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재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정체성의 다원주의적 확장은 보다 민주적인 사회통합성이 형성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오경석·정건화, 2006: 76).

## 5. 맺음말

지난 20여 년간 초국적 이주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발표되었고, 정부의 관련 부서들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학문 분야들에서는 그 동안 누적된 연구결과물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관련 연구의 양적 확대에서부터 질적 발전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새롭게 요구되는 질적 발전의 주요 내용에는 각 학문 내적으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세부 주제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하며, 개별 학문 외적으로는 학제적 협력과 보다 통합된 이론 체계의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접근방법, 이론적 틀, 관점 그리고 정책 원칙들을 포함)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초국적 이주 및 정착 과정 자체가 중층적 배경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복잡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적 접근을 요청하며, 상호관련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통합적 이론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 초국적 이주와 다문

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는 각 학문 분과들로 분산된 채 다학문적 또는 학제적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된 이론체계의 구축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관련 정책들도 여러 담당 부서들 간에 분산된 채 비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접근, 통합적 이론, 종합적 관점과 정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강조될 수 있다. 첫째 오늘날과 같이 학문체계가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결합된 학제적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학제적 접근을 위한 단계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각 학문 분야들에서 연구의 성과와 동향을 비교가능한 항목들을 설정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해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공통된 세부 주제를 설정하여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동안 특정 학문 분야에서 사용된 개념적 틀, 인식론적 가정, 설명적 전략, 대안적 관점 등에 관한 상호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다층적(개인 행위자의 미시적 차원에서 지구를 포괄하는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층적, 다규모적 접근에 바탕을 둔 통합적 이론 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적 차원과 행위의 차원을 상호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유출국에서 유입국으로의 이주와 유입 후 지역사회의 정착을 연속적 과정으로 고찰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 행위로 흔히 간주되는 이주의 주체를 개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관련된 현상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들을 결합시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문제를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윤리적 관점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각 측면들(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문화주의 외에도 세계시민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규범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측면들은 세부적으로 서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의 관점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은 물론 초국적 이

주와 다문화사회를 분석하는 학문적 관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담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정책적으로 관리·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의 원칙으로 적용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주

- 1 이 특집호에 게재된 한 논문에 의하면, “경제학과 정치학 학문분야는 이주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서로 상당한 제한을 해 왔지만, 경제학자들은 최근까지 정치가 이주시장을 제한하는 방법을 무시해 왔으며, 정치학자들은 비록 이주의 경제적 측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주장한다(Freeman and Kessler, 2008: 655).
- 2 한국에서의 연구와 유사하게 서구에서도 학제적 접근에 있어서 한계와 더불어 특정 주제에 관한 관심 부족에 관한 지적되고 있다. 예로 (Suarez-Orozco, M, and Suarez-Orozco, C., 2000)에 의하면, 이주의 경제적 원인과 결과와 같은 어떤 주제들은 많은 주목을 받고, 상당한 연구 성과물이 누적되었지만, 다른 주제들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무시되고 있는 대표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이주가 자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들고 있다.
- 3 학제적 연구에 관한 단계적 발전 과정에 관한 주장은 모라브스카(Morawska, 2003) 및 보메스와 모라브스카(Bommes and Morawska, 200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들에 의하면, “초기단계에는 일단 상이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초국적 이주에 관하여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설정하고 연구를 전개하여 그 결과물을 발표함에 있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실제 “우리는 다학문적 연구가 처음부터 공동의 의문이나 과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상이한 접근법이나 관심주제를 혼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틀로 녹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언어로 우선 관심 주제를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자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이 우선 요청된다.
- 4 이와 같이 행위의 차원과 구조의 차원 간 방법론적 결합은 많은 연구자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구조화’ 이론에 바탕을 두고 국제이주뿐만 아니라 사회 제반 현상들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단지 이주자 네트워크처럼 ‘관계적’ 측면 또는 일부 구조화이론에서 강조되는 ‘중범위’ 이론을 옹호하기 보다는(이러한 접근을 분명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위와 구조를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키는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민환, 2010,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61-86.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6.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편, 2010,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경진.
- 서현아·김정주, 2010, 유아 다문화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66, 59-78.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경석·정건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72-93.
- 윤인진·유태범·양대영, 2009, 국제이주, 소수자, 재외한인, 다문화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자료집, 237-248.
- 전영준, 2009,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편), 다문화콘텐츠연구, 1, 109-130.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59-284.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최정혜, 2010,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2005년-2010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 79-97.
-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이미지, 비교문화연구, 9(2), 157-193.
- 한준성, 2010,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키피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1), 289-316.
- Appiah, K.A., 2006,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실천철학연구회, 2008, 세계시민주의, 바이북스.
- Beck, U., 2002, The cosmopolitan society and its enemie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1-2), 17-44.
- Beck, U., 2006, *The Cosmopolitan vision*, Blackwell, Oxford.
- bhabha, H., 1995,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Bommes, M. and Morawska, E., 2005, Introduction, in Bommes, M. and Morawska, E.(eds), *Migration Research: Constructions, Omissions and the Promises of Interdisciplinarity*, Ashgate Publishing, Hants, England.
- Boswell, C. and Mueser, P.R., 2008, Introduction: economics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 migration research,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4), 519-529.
- Brettell, C.B. and Hollifield, J.F., 2000, Introduction: migration theory - talking across disciplines, in Brettell, C.B. and Hollifield, J.F.(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Routledge, New York, 1-26.
- Castles, S. and Miller, M., 1993/2009(4th edn.), *The Age of Migration*, Macmillan, London.

- Castles, S., 1993, Migrations and minorities in Europe, Perspectives for the 1990s, in J. Wrench and J. Solomos(eds), *Racism and Migration in Western Europe*, Berg Publisher, Oxford, 17-34.
- Castles, S., 2010, Understanding global migration: a social transformation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 1565-1586.
- Freeman, G.P. and Kessler, A.K., 2008, Political economy and migration polic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4), 655-678.
- Gross, J. and Lindquist, B.A., 1995, Conceptualiz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 structuration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2), 317-351.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the Geographies of Freedom*, Columbia U.P.
- Kraly, E.P., 2001, Review of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Edited by Caroline B. Brettell and James F. Hollifield,"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8, 927-928.
- Kymlic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Clarendon, Oxford, 장동진·황민혁·송경호·변영환 역, 다문화주의 시민권, 2010, 동명사.
- Martiniello, N.,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Presses de Sciences Po, Pari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역, 2002, 한울.
-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gi, A., Pellegrino, A., Taylor, J.E., 1998, *World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Clarendon press, Oxford.
-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gi, A., Pellegrino, A., Taylor, J.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66.
-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gi, A., Pellegrino, A., Taylor, J.E.,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4), 699-751.
- McHugh, K., 2000, Inside, outside, upside down, backward, forward, round and round: A case for ethnographic studies in mig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 71-89.
- Mitchell, K., 2004, Geographies of identity: multiculturalism unplugg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5), 641-651.
- Morawska, E., 2003, Disciplinary agendas and analytic strategies of research on immigrant transnationalism: Challenges of interdisciplinary knowledg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611-640.
- Nussbaum, M., 1997, Kant and Stoic Cosmopolitanism,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5, 1-25.
- Nussbaum, M., 2006,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 Overbeek, H., 2002, Neoliberalism and the regulation of global labor mobil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581, 74-90.
- Portes, A. and DeWind, J., 2004,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 (3, Special Issue).

- Portes, A., 1981, Mode of incorporation and theories of labor migration, in M.M. Kritz, C.B. Keely, and S.M. Tomasi(eds), *Global Trend in Migration: Theory and Research on International Movements*,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New York, 279-297.
- Roudonetof, V., 2005, Transnationalism, cosmopolitanism and glocalization, *Current Sociology*, 53(1), 113-135.
- Spivak, G.C.,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Harvard U.P.
- Suarez-Orozco, M. and Suarez-Orozco, C., 2000,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in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immigrant children, in Trueba, E.T. and Bartolome, L.I.(eds), *Immigrant Voices: In Search of Educational Equity*,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Oxford, 17-36.

## Toward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Research 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Byung-Doo Choi\*

**Abstract** As transnational migrants have increased rapidly and society has become multicultural, considerable amounts of research outcomes in academic disciplines have been published and accumulated. Now it seems to be required to consider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integrated theory in order to promote further qualitative development of both academic and real world on this issue. This paper suggests some important points f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tegrated theory and comprehensive policy 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f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we need to level up from comparable reviews on existing research outcomes in individual disciplines, through joint studies on detailed subjects among researchers in different disciplines, to attempts to integrate methodologies and concepts. Secondly, an integrated theory would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multiscalar approach, because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have multi-layered backgrounds and influences from individual level of actors to global level of structures. Thirdly, we need desirable ethical principles such as social justice to consider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cosmopolitanism, transnationalism, postcolonialism as well as multiculturalism, which also can be appli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policy for related problems arising throughout all aspects of society in relation to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Transnational migration, multicultural society, interdisciplinary approach, multiscalar integrated theory, comprehensive policy

---

\* Daegu University, Geography, bdchoi@daegu.ac.kr